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방향 : 이론과 논쟁*

구 동 회**

New Directions in Cultural Geography: Theories and Debates

Koo, Donghoe

요약 : 198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소위 '신문화지리학' 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신문화지리학자들은 문화를 인간의 삶에서 중심적인 범주로, 그리고 사회변동이 경험되고 경합되며 구성되는 매체로 본다. 신문화지리학은 문화유물론을 비롯한 영국의 문화 연구, Geertz의 해석학적 문화론, Saussure의 언어학과 Jakobson의 시학에 토대를 둔 문화기호론, 그리고 문학 이론 등의 영향을 받았다. 전통문화지리학과 신문화지리학의 논쟁은 근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신문화지리학은 전통문화지리학으로부터의 단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지리학의 다양한 연구들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공간적이고 농촌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사회적이고 도시적인' 것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어 : 문화, 신문화지리학, 문화유물론, 문화초유기체론

Abstract : A new strand in cultural geography, so called 'new cultural geography', has begun to grow since around 1980. New cultural geographers understand culture as a central realm of life, and the very medium through which social changes are experienced, contested, and constituted. New cultural geography borrowed some of its theoretical core from cultural studies in United Kingdom such as cultural materialism, Geertz's interpretative theory of culture, cultural semiotics based on Saussure's linguistic structuralism and Jakobson's poetics, and literary theory. Even though the debates between traditional cultural geography and new cultural geography resulted from their different viewpoints on culture, the new one can be considered as an attempt to develop rather than to deny the traditional one. In Korea, various researches in cultural geography can be socially meaningful when they are focused on 'the contemporary, social, urban' as well as 'the historical, spatial, rural'.

Key Words : culture, new cultural geography, cultural materialism, the superorganic theory of culture

* 본 논문을 검토해준 진종현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Real Estate Research Institute), donghoe@yahoo.com

이제는 역사와 지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인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져 버렸다....역사학이 모든 지식을 다 포괄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인 1874년에 니체는 『삶에 있어서 역사적 연구의 유용성과 난점』에 대한 유명한 에세이를 썼다. 오늘날은 『사상에 있어서 지리적 연구의 유용성과 난점』에 대한 책을 하나 써야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Grenier, 1933).

1. 머리말

전통적으로 Sauer 및 그의 영향을 받은 버클리 학파가 문화지리학을 지배해왔다. Hartshorne과 Schaefer의 지리학 방법론 논쟁이 Schaefer의 승리로 일단락된 이후 지리학에서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통계기법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도시·사회·경제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역사·문화지리학은 통계자료의 부족 및 특수한 개별 사례에 대한 관심 등 일반화를 추구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어 통계기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1950-60년대에는 문화·역사지리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학에서 문화 연구의 명맥을 이어 갔던 사람들은 논리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Tuan과 Relph가 대표적이다)이었다. 이들은 1960년대 말부터 인접 분야의 철학과 이론을 도입하여 보다 세련된 모습의 연구를 전개시켜왔다.

1980년대 이래로 지리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경향들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리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양상들이었다. 문화지리학도 예외는 아니

어서, 소위 '신문화지리학'을 주창하는 학자들이 등장함으로써 문화지리학에서도 새로운 개념, 방법론, 주제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영미에서는 1980년경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경향들이 실험되고 정초되었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영미 문화지리학에서 새로운 경향이 출현하게 되었던 상황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문화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1980을 전후로 한 시기에 신문화지리학이 싹트고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신문화지리학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념적 또는 이론적 기반들을 정리하며, 셋째, 신문화지리학과 전통문화지리학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신문화지리학의 출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지리학은 Sauer의 버클리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Leighly, 1979; Parsons, 1979),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인본주의 운동이 문화지리학의 전통적인 작업을 승계하고 또 도전하는 다양하고 생기 있는 공헌을 하였다(Ley, 1981: 249).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급진적 문화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지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Cosgrove(1978)는 인본주의 문화지리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회지리학의 생산적인 결합을 기대하였고, Blaut(1980)는 문화 개념을 오용하거나 문화 개념을 완전히 폐기해 버리는 경향들을 비판하고 문화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1980년은 문화지리학 발달사에서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 중요한 해였다. 우선 1980년에는 전통문화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가 창간되었다. 또한 1980년은 Jackson이 Area에 「문화지리학을 위한 변론」¹⁾이라는 논문을 실었던 해이고, Blaut가 *Antipode*에 「문화지리학에 대한 급진적 비판」²⁾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던 해이며, Duncan이 「미국 문화지리학에서의 초유기체 문제」라는 논문을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에 발표하였던 해이다. 세 논문 모두 문화지리학이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논문이었다. 특히 Duncan의 논문은 Sauer를 비롯하여 Sauer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해온 버클리 학파, 나아가 미국 문화지리학 전반에 대한 비판이었기에, 1993년의 전통-신 문화지리학에 관한 논쟁을 낳게 하였던 불씨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83년에 *Antipode*는 급진적 문화지리학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권두논문 「급진적 문화지리학을 향하여」에서 Cosgrove(1983)는, 마르크시즘과 문화지리학은 문화의 의미에 대하여 기본적인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실천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문화지리학과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의 문제점을 각각 검토한 후에 문화지리학과 마르크시즘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진적 문화지리학의 임무를 제시하였다. Cosgrove가 제시하는 임무는 첫째,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경관에 의미가 부여되고 방식, 둘째, 문화 생산을 통해 공간은 어떻게 상징적 약호로 통합되는가?, 셋째, 경관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간 주체가 담

당하는 상징적 기여를 밝혀내는 것이다. 한편 Thrift(1983)는 논문 「문학, 문화생산, 장소의 정치」에서 문화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을 제시하고 마르크시즘과 문화지리학의 접합을 주장하였다.

1987년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은 다음해에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에 특집으로 실렸다. 당시 이 모임을 주관하던 Cosgrove and Jackson은 Area에 동일한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이 논문에서 '신' 문화지리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 문화지리학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며,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농촌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적이다. 또한 신문화지리학은 문화의 우연적인 속성,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저항 형태에 관심을 기울인다. 게다가 신문화지리학은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중심적임을 주장한다. 문화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문화는 사회변동이 경험되고 경합되며 구성되는 매체이다(Cosgrove and Jackson, 1987: 95).

나아가 Cosgrove and Jackson은 이와 같은 신문화지리학은 경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버클리 학파의 전통 위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관의 상징적 성격은 사회적 의미를 생산·유지시키며, 일단 경관이 상징과 기호로 개념화되고 나면,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태학적

1) 1980년도 Area에는 「문화지리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짧은 글들이 실려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글이다. 이와 함께 「지리학에 문화적 관점이란 존재하는가?」라는 Kofman의 글도 실려 있다(Kofman, 1980, 54-55).

2) 이 논문은 Blaut가 1978년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연례회의의 *Antipode* 창간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분과에서 발표한 글이었다.

방법론보다는 해석학적 방법론이 보다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로서의 경관'이라는 은유³⁾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Gregory and Ley(1988)는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특집호 편집자 서문에서 인문사회과학에서 부상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논란을 서로 중첩된 세 가지 관심영역⁴⁾으로 정리하면서 지리학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새로운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경관 개념'과 경관의 은유적 해석으로서 '텍스트'와 '스펙터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순수한 형태론적인 접근을 취하였던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지리학에 대한 의미 있는 발전을 말해 주는 것이고, 해석의 문제가 권력의 존재양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준다.

Daniels(1988)가 보여준 것처럼, 문화가 최근에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단지 그것의 형태 즉 문화 경관의 물질성 때문만이 아니라, 경관 그 자체가 이제는 '고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Gregory and Ley, 1988: 115).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특집호에는 문학이론을 경관 분석에 적용한 Duncan and Duncan의 논문을 비롯하여 Anderson의 밴쿠버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 Rose의 지방 정치와 시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

Mills의 도시재건(gentrification) 과정이 도심의 의미 변화에 미치는 영향, Ley와 Olds의 공공 스펙터클의 의미 분석(1986년 밴쿠버 세계박람회를 사례로 하여 공공 스펙터클로서 경관이 헤게모니적 권력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주장하였다), Jackson의 카니발의 정치에 대한 연구 등 총 6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한편 Cosgrove는 역사지리학에서 상징 해석과 기호론적 접근을 통해서 문화지리학으로 관심을 넓혀 왔다. 특히 그는 문화를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해석하면서 급진주의, 마르크시즘과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자 시도하였고, 1984년 그가 발간한 저서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은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1988년에는 Daniels와 더불어 편집서 *The Iconography of Landscape*를 출간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경관을 문화적 이미지(즉 주위 환경을 재현, 구조화 또는 상징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로 정의하고, 경관의 도상학, 즉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를 시도하였다(Cosgrove and Daniels, 1988: 1).

Rowntree(1988: 579-580)도 신문화지리학의 출현을 지적하면서, 전통문화지리학과 신문화지리학의 경향을 -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다소 지나친 감이 있지만 - 단순화시켜 대비하였다. 그리고 신

3) 예술과 건축에서 시작된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여지게 되자, 지리학의 은유는 보다 문화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과거에 선호되던 체계, 유기체 또는 기계와 같은 자연과학적 은유를 사용하기 보다는, 텍스트(Duncan and Duncan, 1988), 극장(Cosgrove and Daniels, 1989), 카니발(Jackson, 1988), 스펙터클(Ley and Olds, 1988) 등을 사용한다. 이런 은유는 해석학적 방법론이나 해체적 방법론과 같은 색다른 방법론들을 요구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은유가 지리적 재현 자체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Cosgrove, 1989, 567).

4) 첫째는 이론적 전략이다. 보다 폭넓어진 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문화의 위치는 무엇인가, 문화체계와 인간행위 사이의 상호관련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와 경제, 문화와 정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예, Archer, 1988). 둘째는 방법론적 전략이다. 문화구성체의 문제, 그리고 민속지학과 도상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적용할 것인가?(예, Cosgrove and Daniels, 1988; Marcus and Fischer, 1986). 셋째는 재현 전략이다. 문화가 호출되고 각인되는 재현방식은 무엇인가? 문화들 사이의 상이성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예, Clifford and Marcus, 1986; Gregory, 1989).

문화지리학을 “오래된 술을 새 병에 담는 것”으로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실질적인 연구물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그 후에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위 ‘현대 사회 이론’을 도입하여 경관과 장소라는 전통적인 관심사를 연구하고 확장시키는 ‘신’ 문화지리학이 출현하고 있다. 전통문화지리학이 특수하고 개인적이고 비이론적이고 비정치적이고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신문문화지리학은 이론적이고 정치적이고 권력 관계와 사회구조라는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Rowntree, 1988, 579).

1989년 Jackson은 “지난 10년에 걸친 신문문화지리학의 업적을 ‘최초로’ 요약하고 리뷰한 책 (Cosgrove, 1990: 560)”으로 평가받는 *Maps of Meaning*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최초의 신문문화지리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 Jackson은 신문문화지리학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신문문화지리학과 관련된 저작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Philo(1991)는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사회·문화지리 스터디그룹의 간행물인 *New Worlds, New Wor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를 펴냈고, Duncan(1993)은 이 책을 1991년 문화지리학계 최고의 문제적 서적으로 꼽았다. 여기서 그는 문화지리학이 영국에 비해 미국이 앞서 있던 유일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영국의 문화지리학을 세 마디(Cosgrove, Jackson, Daniels를 지칭한다)로 일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리학에서는 최초로 텍스트성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Barnes and Duncan(1992)의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Anderson and Gale(1992)의 *Inventing Places: studies in cultural geography*, Duncan and Ley(1993)의 *Place/Culture/Representation*, Knox(1993)의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등의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이외에 최근 Duncan et al.(2004)은 이른바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 일컬어지는 문화지리학의 주요한 변화를 검토하고 주요 이론(역사유물론, 페미니즘, 포스트구조주의 등)과 주제(자연, 정체성, 경관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를 출판하였다.

이처럼 198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태동하기 시작한 신문문화지리학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문화이론, 기호학 및 기타 인접 학문 분야의 발전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또한 1980-81년의 Duncan의 논문을 둘러싼 논쟁과 1987년의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계기로 그 지위가 한층 공고해졌으며, 199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 성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문화지리학은 1980년대 초까지 지배적이었던 Sauer류 문화지리학에 비해 보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용하는 해석적 틀을 제시하는 분파들로 분화되어 왔다 (Duncan, 1994, 361). 현재 분파들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Sauer류 문화지리학, Sauer류 문화생태학을 재구성하려는 Butzer와 Denevan과 같은 학자들의 신문문화생태학, 재구성된 Sauer류 경관 지리학과 영국의 문화 연구를 통합하려는 신문문화지리학으로 나뉜다. Duncan은 신문문화지리학이 너무나 다양하여 가닥을 잡아 분류를 하기가 매

우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신문화지리학을 '경관과 정체성', '경관의 상호텍스트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McDowell(1994)은 신문화지리학의 조류를 영국의 문화유물론과 미국의 경관학파로 나눈다. 하지만 '문화유물론'은 철학적 틀에 해당하고 '경관'은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자는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또한 '문화유물론'을 한 분파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며, 경관 연구도 경관을 해석하는 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경관학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것도 분류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신문화지리학의 분파를 분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문화지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추출하는 것이다. 즉 Cosgrove의 경관 도상학, Duncan의 문학적 포스트구조주의, Jackson의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 등으로 말이다. 하지만 다수의 중요한 신문화지리학자들의 연구 경향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단점이 있다.

3. 신문화지리학의 이론적 기반

신문화지리학은 문화유물론을 비롯한 영국의 문화 연구, Geertz의 해석학적 문화론, Saussure의 언어학과 Jakobson의 시학에 토대를 둔 문화 기호론, 그리고 문학 이론 등의 영향을 받았다.

첫째, 문화유물론. Williams의 문화유물론은 "사적 유물론 내의 물질문화와 문학 생산의 특성들에 대한 이론"(Williams, 1977)이다. 2차 대전 이후 특히 1960-70년대에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국면 속에서 전개된 Williams의 문화유물론은 정치, 경제, 문화의 '장구한 혁명' 과정 속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있는 문화적 변혁과정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Williams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문화의 생산과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문화와 이데올로기 분야를 지배기제가 작동하는 중요한 장이며 동시에 대안적이며 대항적인 실천이 가능한 장으로 설정하였다(박거용, 1992).

전통적인 역사유물론에서 문화란 상부구조의 하나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전통을 비판하면서 역사 유물론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문화유물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Williams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구분 및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할 때 '결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상부구조가 일방적으로 토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다. 따라서 문화유물론은 역사 유물론의 문화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물론에 의한 이론적 접근은 실제적인 생산수단과 생산조건 안에서 의미작용의 형태들을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은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1980), *Marxism and Literature*(1977)에 잘 나타나 있다(Eldridge and Eldridge, 1994: 32).

연구해야 할 것은 '토대'나 '상부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리 불가능한 실제 과정이며, 마르크스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속에서 핵심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은 결정(determination)이라는 복합적 개념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Williams, 1977: 82).

문화유물론의 입장에 도달하기 위해, Williams는

마르크스주의 담론의 많은 변종들을 특징지어왔던 용어들(총체성, 매개, 반영, 생산양식, 체계모니)에 도전, 거부 또는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그가 보기에 '물질적 사회과정' 과 '언어' 라는 범주를 분리하는 것이 실수였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정서구조, 지배문화, 잔여문화, 부상문화라고 명명한 것에 의해,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나타나는 계급관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Eldridge and Eldridge, 1994: 33).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은 일반적으로 토대-상부구조 모델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명제는 사회구성체의 복잡한 작용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환원론적이며 기계적이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Williams는 이 명제의 분석을 위해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인 '결정' 개념을 다시 정의하였다. 그는 특정한 발전의 내재적 법칙 또는 부분적인 외재적 힘이 한계를 설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선제하는 외재적 힘이 후속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선배치, 예견, 통제하는 과정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그는 '결정'의 의미를 관념론적, 신학적으로 제한해서 결정론에서처럼 비유물론적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정을 인간행위에서 비롯되는 복합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상부구조 모델도 수정하여, 상부구조가 토대의 현실을 단지 반영, 모방, 재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매개' 라는 개념을 상정하였다. Williams는 '토대' 개념에 더욱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문화적 생산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토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뿐만 아니라 그는 '토대' 라는 개념이 능동적이며 복잡하고 모순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대를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Williams는 토대-상부구조 명제의 각각의 용어를 다시 정의하였다. 즉 그는 토대를 사회 자체, 인간 자체의 생산 그리고 실제 삶의 물질적 생산과 재생산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로 확장하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넓은 의미에서 필수적이며 생산적인 사회적 힘들을 상부구조적인 것, 더 나아가서 단지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Williams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경제적 변화와 그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명백한 사회현실인 전체적 생활양식의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illiams, 1958: 271-272). 즉 삶의 전체방식에 대한 연구는 토대와 상부구조에 걸쳐 있는 문화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이 문화 지형에 대한 이해는 경제적 요소의 최종적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해석학적 문화론. 행위는 의미와 상징적 그물 안에서 펼쳐지며, 그 해석은 의도와 맥락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요구한다. 이런 입장은 사회사가 (E. P. Thomson)와 문화연구가 (Raymond Williams와 Clifford Geertz)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Ley, 1985: 417). Geertz는 '해석 인류학'이라는 용어를 이미 1950년대부터 사용하였으나, 『문화의 해석』을 출간하면서 '해석'이라는 말이 전면에서 부각되었다(코이즈미 준지, 1993: 190). Geertz는, Tylor의 문화 정의(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기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대단히 복합적인 것)는 특정한 분석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비판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일련의 기호와 상징으로 문화를 이해하였다. Geertz의 접근은 본질적으로 기호학적이다. 즉 『문화의 해석』 서장에서 그는 “인간은 스스로 짠 의미의 그물에 매달린 동물”이며, 따라서 “문화 분석은 법칙을 추구하는 실험 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 과학”이라고 주장하였다(Jackson and Smith, 1984: 38; 코이즈미 준지, 1993: 192).

이와 같은 해석학적 접근은 텍스트로서의 경관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공간분포와 문화적 인공물은 해당만큼 많은 질문을 노정하며, 이를 사상, 행위, 맥락의 상징적 그물의 산물로서 해석학적으로 볼 때 보다 완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Ley, 1985: 418). 하지만 단지 소수의 문화지리학자들만이 Geertz의 저작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컨대 Duncan(1980)이 Sauer의 초유기체적 문화 개념을 비판한 이후 흥미로운 논쟁이 전개되었고, 거기서 Geertz의 해석학적 인류학이 초유기체론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언급되었다(Richardson, 1981; Duncan, 1981). 그러나 Geertz의 해석 인류학은 해석의 유효성 문제(해석이 유효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해석 방법의 문제(의미 있는 상징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의미 생성 역학의 문제(사회의 물질적 조건이 상징과 의미의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코이즈미 준지, 1993: 201-202).

셋째, 문화 기호론. 문화 기호론은 언어적 텍스트

의 해독과 유사한 해독의 시도를 다양한 문화 영역(도시 및 촌락의 공간, 건축, 의상에서부터 축제, 구경거리 등에 이르기까지)에서 행하려 한다(세키 카즈토시, 1993, 209-211). Duncan⁵⁾은 도시기호학에 관한 논문(1987b)에서 기호학의 흐름과 도시기호학의 유형을 개관하였다. 기호학은 구조주의 기획의 하부 장르로서, 프랑스에서 태동하였으며 1960-70년대에 발달하였다. 추종자들은 문학, 패션, 동물행태, 건축, 도시연구 등 다양한 현상에 기호학적 접근을 적용해 왔다. 기호학은 처음에 미국 철학자 Peirce와 프랑스 언어학자 Saussure에 의해 20세기 초에 출현하였다. Saussure는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을 구별하고 파롤보다는 랑그를, 통시적인 것보다는 공시적인 것을, 행위보다는 구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Saussure 이후, 기호학자들은 기호를 시니피앙(signifiant, 記標)과 시니피에(signifie, 記意)로 구분하였다. Peirce는 기표를 물체(object), 기의를 해석체(interpretant)라고 불렀다. Roland Barthes를 비롯한 몇몇 기호학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1차적 의미작용체계(외연적 의미)와 2차적 의미작용체계(내포적 의미)를 구분하였다. Barthes의 경우, 내포적 의미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연결되며 이데올로기적이다. 기호학자에게 사회는 기호체계이며 모든 행위와 대상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약호들(codes)에 의해 지배되는 의미체계의 일부로서 연구된다.

넷째, 문학 이론. 신문화지리학은 또한 문학 이론

5) Duncan은 *Urban Geography*에 도시 이미지에 관한 두 편의 리뷰 논문(1987a; 1987b)을 썼다. 인지도도 그리기와 도시기호학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는 양자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인지도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신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립적” 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도시기호학자들은 경험주의에 그다지 큰 애착을 보이지 않는다. 신실증주의자들은 거의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 반면 기호학자들은 (기호학적 모델에 적합하다면) 거의 모든 것을 믿으려 한다. 이 두 전통은 서로 다른 두 마리의 새와 같다. 즉 전자는 참새고, 후자는 극락조이다. 전자는 지적으로 아둔하고 단조롭고 상식적이며, 후자는 지적으로 결만 번지르르하고 별나고 자아도취적이다(Duncan, 1987b: 473-483).

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경관은 문학 텍스트처럼 읽혀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관은 문학 텍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독자 수용 등의 개념은 중요하다(Duncan and Duncan, 1988: 117). 지리학자들은 경관이 사회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밝히려 하고 하며, 이러한 경관 연구는 문학 이론과 사회 이론을 필요로 한다. 문학 이론은 경관이 가진 텍스트적 성격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경관이 사회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독해 이론을 제공해준다.

4. 전통-신문화지리학 논쟁

새로운 문화지리학의 등장은 문화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문화는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문화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논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문화 개념에 대한 공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예 문화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출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는 마르크스나 알튀세르도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지 않았고 대체로 ‘삶의 방식’이라는 광의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부르주아 문화론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쨌든 그동안에 문화라는 용어는 광의로(자연과 대비해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과 그 산물, 그리고 그 산물의 생산과 소비방식과 관련된 일련의 제

도, 관행, 태도 등의 일체, 또는 삶의 방식 전체) 사용되거나, 아니면 협의로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 뚜렷이 제도화된 특수한 영역의 근방(문학예술과 과학, 교육, 종교와 같이 제도적 형식을 갖춘 공식문화)을, 더욱 협의로 문학, 예술활동과 제도를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심광현, 1992: 104-105).

지리학에서도 문화 개념은 모호하게 취급되어 왔다. 문화지리학은 문화 개념에 대한 명시적 인식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문화지리학자들은 문화의 의미에 대해 방임적 태도를 취해 왔다. Wagner와 Mikesell(1962: 5)은, “문화지리학자들은 문화의 내적 작용을 설명하거나 인간 행태의 패턴을 완전하게 기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간사회가 그들의 해비타트(habitat)를 이용하고 수정하는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편협한 문화 개념에 대해 Brookfield(1964)는 비판을 가하였지만, 지리학에서의 문화 개념에 대하여 합의된 견해를 제시하는 텍스트는 없었다(Spencer, 1978: 81).

지리학에서 문화 개념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은 Duncan(1980)이었다. 그는 미국 문화지리학에서의 문화 개념이 초유기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Cosgrove and Jackson(1987: 99)은 문화를 “사람들이 물질적 세계의 평범한 현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주요한 상징의 세계로 변형시키는 매체”로 보았다. Jackson(1989: 2)은 “사회집단이 나름대로의 생활패턴을 발전시키는 차원”을 문화라 불렀고, 문화 자체를 “세계를 인식하는 의미의 지도”로 보았다. 그러나 Duncan(1980)이 미국 문화지리학에서의 초유기체론을 비판한 이후에도, 문화지리학자들은 Cosgrove와 Jackson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Mitchell, 1993: 103).

이에 Mitchell(1993)은 이와 같은 여러 문화지리학자들이 여전히 문화를 물상화(reification)하고 문화에 존재론적·설명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물상화가 오류이며, “존재론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없고, 대신에 문화 관념(또는 이데올로기)이 존재할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어느 경우이나, 문화는 상징적이고 능동적이고 항상 변화하고 권력관계에 따라 어지럽혀진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나, 문화는 사물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과정, 분석적 범주, 지도화할 수 있는 차원(또는 영역)인 듯하다(Mitchell, 1993: 103).

Mitchell이 지적하였듯이, 존재론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없으며, 오직 문화에 대한 관념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문화 관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문화라고 부르게 되는가? Williams(1961: 423)에 의하면, 지배 계급이 공동유산의 전달과 분배를 상당 부분 조정하고 전통은 항상 선별적이므로, 문화 관념은 우세한 계급의 이해와 관계가 있고, 또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화 개념은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 된다. 여기서 신문화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문화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간적 텍스트에서 어떻게 기호화되며, 또 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통문화지리학과 신문화지리학의 논쟁도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논쟁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1980년 발표된 Duncan의 논문 「미국 문화지리학에서의 초

유기체 개념」이었다. Duncan은 우선 문화초유기체론을 조목조목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초유기체론은 “개인과 문화를 분리시키고, 문화를 물상화하고, 한 문화 안에서는 내적 동질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화를 대표적인 인성과 이상적 가치의 체현으로 특징지우고, 파블로프적 조건반사이론을 암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Duncan, 1980: 181). 그리하여 문화초유기체론에서 문화는 “인간 위에 있는,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자체의 법칙에 신비롭게 반응하는 실체”로 간주된다. Duncan에 따르면, 문화초유기체론은 “20세기 초 인류학자 Alfred Kroeber와 Robert Lowie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후 Leslie White에 의해 다듬어졌으며, 지리학자 Carl Sauer와 버클리에서 공부하던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다.” 결국 그는 문화초유기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Sauer, 버클리 학파, 나아가서는 미국 문화지리학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였던 셈이다.

이와 같은 문화초유기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Duncan은 물상화되지 않은 문화 개념을 찾아 나서면서, “문화를 고유한 설명 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행위를 위한 맥락으로 사용한다면 문화라는 것은 구제받을 수 있다”(Duncan, 1980: 197)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관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인류학자 Clifford Geertz이다. Geertz는 “문화는 사회적 사건, 행태, 제도, 또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그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묘사할 수 있는 맥락(context)이다”(Geertz, 1973; Duncan, 1980: 197에서 재인용)라고 주장하였다.

Duncan(1980)은 문화를 존재론적 지위나 인과력으로 물상화시키는 초유기체론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물상화된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지리학과 사회지리학의 일정한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화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이라면 문화지리학과 사회지리학의 구분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굳이 '문화'라고 언급하면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규모의 여러 사회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사회지리학 쪽의 사회적·심리적 설명이나 종종 보이는 정치적 설명들은 문화지리학의 경관이나 예술적·미학적 편향을 훌륭하게 보완해 줄 것이다. 사회지리학은 문화지리학의 지리관(즉,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 연구)을 강조해 주고, 문화지리학은 특정 사회·역사적 경관과 결합된 개인 또는 개인집단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칸막이를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따라서 물상화된 문화 개념을 거부한다는 것은 문화지리학과 사회지리학의 통합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문화를 자율적인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맥락으로 본다면, 사회지리학과 문화지리학의 구분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Duncan, 1980: 198).

Jackson 또한 사회지리학과 문화지리학을 통합하여 문화 이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Sauer를 비롯한 전통문화지리학자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을 비판하고, Williams의 문화 연구에 착안하여 유물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를 경합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들과 결부시키면서 대중문화, 성차별, 인종, 언어 등의 문제를 다루었고, 나아가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서 더욱 광범위한 주제에 도전하였다. Jackson은 문화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사회관계의 분석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지리학의 새로

운 지향은 사회지리학의 관심과의 통합을 의미하고, 폭넓고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치는 문화연구 분야의 발전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 Jackson이 발전시킨 문화지리학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지고 지리적으로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문화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문화는 "집단의 사회관계가 구조화되고 형성되는 방식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러한 형태가 경험되고 이해되며 해석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문화는 또한 지배와 종속의 패턴으로 반영되는 권력관계를 의미한다. 문화는 경제적, 정치적 모순이 경합되는 장이다. 이러한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문화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부에 두고,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정치·경제와의 교차점을 찾는다. 이것은 문화 그 자체에서 의미가 경합하는 문화정치의 영역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전통문화지리학에 대한 Duncan의 전면 공격에 대한 비판은 그리 거센 편은 아니었다. Duncan의 논문에 대하여 Richardson(1981: 287)은, "개인주의적 환원론에 빠지지 않는다면 Duncan의 문화초유기체론 비판은 보다 동적인 문화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인류학(특히 Geertz)의 해석학적 이론과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제시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는 Duncan의 견해와 상충하는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Symanski(1981)의 비평은 비평이라기보다는 노골적인 흠집내기에 가까운 글이었다. 이어지는 반비판에서 Duncan은 "Symanski의 글은 논문의 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쓴 글이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Duncan, 1981: 290)고 힐난하였다. 따라서 Duncan의 논문에 대한 전통문화지리학자 측에서의 체계적인 비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Duncan은 모든 문화지리학자가 문화초유기체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인류학과 지리학에서의 문화 개념에 대한 사상사를 살펴보고, 이들의 문화관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문화관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Duncan, 1981: 291). 또한 Rowntree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를 표하며 “문화지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화 이론에 대한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초유기체적 가정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나을 것” (Rowntree, 1986: 584)이라고 하였다.

문화초유기체론에 대한 논쟁이 잦아든 후, 전통-신 문화지리학의 관계, 신문화지리학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몇 차례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Kofman(1988)은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가 주최한 심포지엄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문화지리학에서 새로운 방향이 진실로 등장하였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방향이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들의 가정이나 방법론들을 명료화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문화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문화지리학의 본질에 대하여 함의를 가지리라는 어떠한 인식도 없었다 (Kofman, 1988: 86).

미국 학계의 Rowntree, Foote and Domosh (1989) 등은 전통-신 문화지리학 사이의 단절을 부인하면서 전통문화지리학이 역사적 깊이를 지닌 주제를 선호하였지만 일상생활과 경관 연구에 대해서도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영국의 Cosgrove와 Jackson이 주

장하는 신경향들은 보다 전통적인 관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지만, 영국의 연구 경향이 북미 문화지리학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는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유보적 평가를 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신문화지리학을 둘러싼 또 한번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1993년 Price와 Lewis가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에 「문화지리학의 재창조」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Duncan을 위시한 신문화지리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들은 Sauer 및 버클리학과와 전통문화지리학에 대한 신문화지리학자들의 비판이 초점이 맞지 않는 추잡한 공격이었고, 신문화지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연구 방향이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Cosgrove, Jackson, Duncan은 일제히 반론을 제기하였고 계속해서 Price와 Lewis에 의한 반비판이 이어졌다.

이처럼 ‘신’ 문화지리학과 ‘전통’ 문화지리학을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양자의 차이는 문화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Price와 Lewis가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문화지리학은 자연경관이 문화경관으로 변형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신문화지리학은 경관 상에 나타나는 의미작용 패턴들과 이러한 패턴들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역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인종, 계급, 성이 공간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Price and Lewis, 1993: 1). 간단히 말해, 양자 모두 (문화) 경관에 관심을 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문화관의 차이이다. 저간의 문화 이론과 사회 이론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문화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관 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따라서 ‘신’ 이라는 것은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의미하는 것이 지 '전통' 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미의 전통-신 문화지리학자들의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태도는 문화지리학의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다. 전통-신 문화지리학자들이 더 이상의 말다툼을 하는 것은 반생산적이며, 각각의 영역에서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타자에 대해 헤게모니를 행사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Duncan, 1994: 361).

5. 맺음말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경향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것은 신문문화지리학의 연구 경향들이 너무나도 다양하여 도무지 갈래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문화지리학의 연구 경향들의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신문문화지리학의 중점적인 연구 대상은 경관, 즉 텍스트로서의 경관이다. 문제는 경관을 연구하는 방식, 즉 경관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관 그 자체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지만, 신문문화지리학은 기호나 상징으로서 경관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텍스트로서의 경관은 그것을 통해 재현되는 사회경제적 의미들과 결합되며, 각각의 것들은 하나의 주제로, 즉 경관과 이데올로기, 경관과 (장소) 정체성, 경관과 성, 경관과 인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논자들이 따라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는 Jackson이 '문화정치' 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Cosgrove와 Jackson이 언급한 것처럼, 이제 문화지리학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며, 공

간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농촌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문화 연구를 해야 한다. 과거의 촌락에 대한 형태론적 경관 연구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에 대한 해석학적 경관 연구들을! 그래야만 서론에 그치는 논문이 아니라 "So what?" 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논문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래야 비로소 문화지리학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은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 문화지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고 그에 대한 문화적 실천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공간적이고 농촌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사회적이고 도시적인' 것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거용, 1992, "지배문화 분석의 한 모델-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유물론," 문화과학, 135-152.
- 세키 카츠토시, 1993, "문화 기호론," 이야베 쓰네오 엮음, 이종원 옮김,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인간사랑, 205-218.
- 심광현, 1992, "유물론적 문화지형학 구성의 전망," 문화과학, 91-116.
- 코이즈미 준지, 1993, "해석 인류학," 이야베 쓰네오 엮음, 이종원 옮김,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인간사랑, 189-203.
- Anderson, K. & Gale, F. (eds), 1992, *Inventing Places: studies in cultural geography*, Belhaven Press.
- Anderson, K. J., 1988, Cultural hegemony and the race-definition process in Chinatown, Vancouver: 1880-1980,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2), 127-150.

- Archer, M., 1988, *Culture and Age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es, T. & Duncan, J. S. (eds), 1992,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Routledge.
- Blaut, 1980, A radical critique of cultural geography, *Antipode* 12(2), 25-29.
- Brookfield, H. C., 1964, Questions on the human frontiers of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40, 283-303.
- Clifford, J. & Marcus, G.,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sgrove, D. & Daniels, S. (eds), 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sgrove, D. & Jackson, P., 1987, New directions in cultural geography, *Area* 19, 95-101.
- Cosgrove, D., 1978, Places, landscapes and the dialectics of cultural geography, *Canadian Geographers* 22, 66-72.
- Cosgrove, D., 1983, Towards a radical cultural geography: problems of theory, *Antipode* 15(1), 1-11.
- Cosgrove, D., 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osgrove, D., 1989, Geography is everywhere: culture and symbolism in human landscape, in Gregory, D. & Walford, R. (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Palgrave Macmillan, 118-135.
- Cosgrove, D., 1990, Then we take Berlin: cultural geography 1989-90,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4), 560-568.
- Daniels, S., 1989, Marxism, culture and the duplicity of landscape, in Peet, R. & Thrift, N. (eds), *New Models in Geography* 2, 196-220.
- Duncan, J. S. &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17-126.
- Duncan, J. S. & Ley, D. (eds), 1993, *Place/Culture/Representation*, Routledge.
- Duncan, J. S., 1980, The Superorganic in American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181-198.
- Duncan, J. S., 1981, Comment in Reply,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2), 289-291.
- Duncan, J. S., 1987a, Review of urban imagery: cognitive mapping, *Urban Geography* 8(3), 264-272.
- Duncan, J. S., 1987b, Review of urban imagery: urban semiotics, *Urban Geography* 8(5), 473-483.
- Duncan, J. S.,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 Duncan, J. S., 1993, Landscapes of the self/landscapes of the other(s): cultural geography 1991-9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3), 367-377.
- Duncan, J. S., 1994, The politics of landscape and nature, 1992-9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3), 361-370.
- Duncan, J. S., Johnson, N. & Schein, R., 2004,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Blackwell.
- Eldridge, J. & Eldridge, L., 1994, *Raymond Williams: making connections*, Routledge.
- Geertz, C., 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3-30.
- Gregory, D. & Ley, D., 1988, Culture's geographi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2), 115-116.
- Gregory, D., 1989, Areal differentiation and post-modern human geography, in Gregory, D. & Walford, R. (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Palgrave Macmillan, 67-96.
- Jackson, P. & Smith, S., 1984, *Exploring Social Geography*, George Allen & Unwin.
- Jackson, P., 1980, A plea for cultural geography, *Area* 12.
- Jackson, P., 1988, Street life: the politics of carnival,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and space* 6(2), 213-230.
- Jackson, P., 1989,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 Knox, P. L. (ed), 1993,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Prentice-Hall.
- Kofman, E., 1980, Is there a cultural point of view in geography?, *Area* 12, 54-55
- Kofman, E., 1988, Is there a cultural geography beyond the fragments?, *Area* 20(1), 85-87.
- Ley, D. & Olds, K., 1988, Landscape as spectacle: world's fairs and the culture of heroic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2), 191-212.
- Marcus, G. & Fischer, M.,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an experimental moment in the human scienc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Dowell, L., 1994, The transformation of cultural geography, in Gregory, D. et. al., *Human Geography: society, space, and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46-173.
- Mitchell, D., 1993, State interventions in landscape production: the wheatland riot and the California Commission of Immigration and Housing, *Antipode* 25(2), 91-113.
- Philo, C. (ed), 1991, *New Worlds, New Wor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 Price, M. & Lewis, M., 1993, The Reinvention of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1), 1-17.
- Richardson, M., 1981, Commentary,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2), 284-287.
- Rose, G., 1988, Locality, politics and culture: Popular in the 1920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51-168.
- Rowntree, L., 1986, Cultural/humanist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0(4), 580-586.
- Rowntree, L., 1988, Orthodoxy and new directions: cultural/humanist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4), 575-586.
- Rowntree, L., Foote, K. & Domosh, M., 1989, Cultural geography, in Gaile, G. & Willmott, C. (ed), *Geography in America*, Merrill, 209-217.
- Spencer, J., 1978, The growth of cultural geograph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2(1), 79-92.
- Symanski, R., 1981, A Critique,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2), 287-289.
- Thrift, N., 1983, Literature, the production of cultural and politics of culture, *Antipode* 15.
- Wagner, P. & Mikesell, M., 1962,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liams, R., 1961, *Culture and Society: 1780 - 1950*, Penguin Books (羅英均 譯, 1988, 文化와 社會: 1780 - 1950, 梨花女大出版部).
-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이일환 역, 1993,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 Williams, R., 1980,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 Verso Books.
- Grenier, Jean, 1933, *Les Iles* (김화영 옮김, 1980, 섬, 민음사).